

신규 취농의 요인 분석

김정호* 마상진**

Key words: 예비 취농자(prospective farmer) 신규 취농자(beginning farmer)

ABSTRACT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variables to explain the successful farm readiness and settling of new farmers. For the purpose, this study carried out survey of 273 prospective farmers and 107 beginning farmers from students and graduates of Yeosu Agricultural Management College and National Refarming Movement Office(jeonguk-gwinong-undong-bonbu). Survey analysis indicated the following. While the future willingness of farming engagement of prospective farmers depended on farming attitude, age, and agr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the farming readiness depended on agr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farming counselor, and the supports of whom they know. The successful farming of beginning farmers relied on agr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farm succession, rural area birth, farming motive, farming career, farm birth, farming products, farming place, age, and the supports of who they know.

- 1. 서론
- 2. 선행 연구
- 3. 연구방법
- 4. 연구결과
- 5. 결론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젊은 신규 농업인력의 유입 감소로, 우리 농업의 미래

를 담당할 후계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농업총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김정호 등 2003)에 의하면, 농가 수는 2005년 122만호, 2010년에는 103만호, 2015년에는 84만호 수준으로 감소하고, 농업경영주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의 경영주는 2005년 57.4%, 2010년 63.3%, 2015년 70.1% 등으로 증가하는 반면, 40대까지의 청년·장년층경영주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2005년 18.4%에서 2010년 11.4%, 2015년 5.7%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60세 이상의 고령 경영주에 의한 1ha 미만의 영세농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업인력 구조는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2015년에 20~30대 경영주는 2천여 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부는 후계 농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1981년부터 해 오던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 뒤를 이어 최근에 젊은 인력의 영농분야 유입을 위해 창업농 후계농업인 지원제도, 선진농가에서의 청(소)년의 영농분야 실무 연수를 지원해 주는 농업인턴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농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대학생 창업연수제, 창업농에 대한 후견인의 전담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 창업농 후견인제 등을 새롭게 도입·실시하고 있다(농림부 2004a, 2004b).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신규 취농과 관련한 기초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신규 농업인력의 확보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대에 따라 후계인력 육성에 중점을 두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이용환 등 2000; 안덕현 등 2001; 정철영 등 2001; 강대구 등 2003, 2004), 실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신규 취농을 결심하고, 이들은 어떻게 영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1.2. 연구목적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신규 농업인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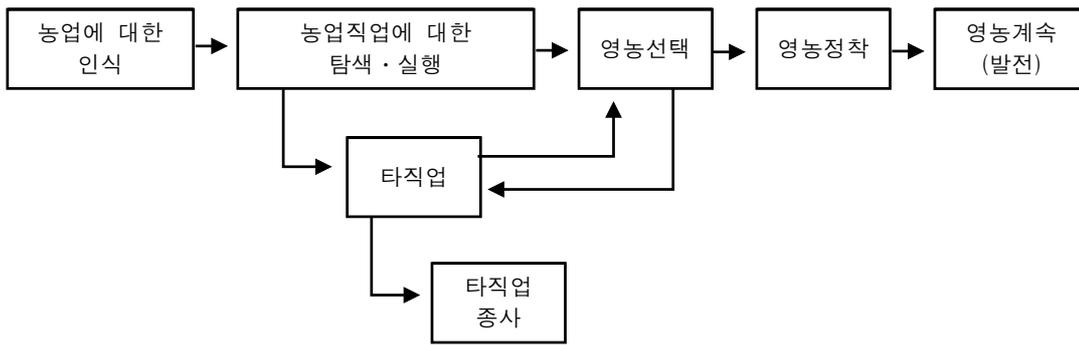
확보하고 신규 취농자가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하도록 하는 정책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취농을 고려 중인 예비 취농자와 영농에 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취농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농(준비)의 실태를 조사하고, 성공적인 신규 취농(준비)와 관련한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예비 취농자와 신규 취농자들의 취농 환경과 여건을 구명한다.
- 둘째, 예비 취농자들의 취농 의향과 준비 상황을 구명한다.
- 셋째, 신규 취농자들의 취농 실태를 구명한다.
- 넷째, 성공적인 취농(준비)를 설명해 주는 취농 관련 변인을 구명한다.

1.3. 연구의 제한

일반적으로 예비 취농자(pro prospective farmer)는 아직 영농에 종사하고 있지 않지만 학교 또는 사회교육기관에서 영농 종사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 신규 취농자(beginning farmer)는 취농한지 얼마 경과하지 않아 아직 정착과정 중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이 예비 취농자 중 2005년 당시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재학생 그리고 (사)전국귀농운동본부 교육생 그리고 신규 취농자 중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생과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이수생만을 포함하므로 연구의 결과는 예비 취농자 일반, 또는 신규 취농자 일반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림 1. 영농정착 모형(정성봉 1987)



2. 선행 연구

신규 취농의 과정은 자신의 진로에 관한 인식과 탐색, 실행과정을 거쳐 선택을 하게 되고, 선택한 직업을 유지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그림 1>.

신규 취농의 과정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우선 취농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동기’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취농의 동기나 목적에는 가치관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준화하기는 어렵다. 취농의 동기를 분석한 선행 연구(김형용 1998, 조록환 1998, 정한모 2002, 김성수 등 2004, 나승일 등 2004)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농촌의 전원생활이 좋아서 부수적으로 영농을 하는 형태(전원생활형)가 있는가 하면, 직업으로서 농장경영을 창업하는 형태(농장창업형)가 있고, 또한 소수이지만 다소 환경운동이나 종교적 실천 때문에 정착하는 형태(소속단체형)가 있으며, 나아가 도시 생활이 싫어서 농촌으로 도피하는 형태(도시 도피

형) 등이 있다.

다음 단계로 신규 취농자가 영농에 정착해야 하는데, 영농 정착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원상봉 1983, 이영대 1981, 류창렬 1982, 정성봉 1987, Molnar & Dunkelberger 1981, Phipps 1988)를 정리해 보면 개인적 요인(자아 개념, 성격, 농업에 대한 태도, 영농 적성, 영농 준비도), 교육 관련 요인(학교의 물적 조건, 학교의 사회적 풍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학업 성취), 가정 요인(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정의 의사결정 구조, 가정의 가치지향성, 가정의 상호 작용 환경), 사회적 요인(지역사회의 가치 지향, 대중매체 접촉 정도, 동료 집단의 지위, 지역사회와의 상대적 지위, 영농 선택시 경기 동향, 농업의 직업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특히 영농 정착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서로 비교하기도 하는데, 성공적인 영농 정착에는 농장 경험의 수준, 농장의 입지 조건, 작목의 적합성, 작목의 결합 및 작부체계, 농산물 가격정보 활용, 생산물 판매가격의 안정성 등

의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영철, 김성수 1987).

한편 성공적인 영농정착에 대한 판단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 선행 연구(이영대 1980, 류창렬 1982, 정성봉 1987, 민상기 등 1995, 이동하 1998)를 종합해 볼 때 영농에 종사하면서 적절한 농업 소득을 올리고 있고 자기 직업에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원만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적 측면(농업소득), 직업적 측면(직무능력, 직무만족)과 더불어 사회적 측면(가족, 친지, 이웃관계, 등) 등의 제반 활동을 포괄하여 접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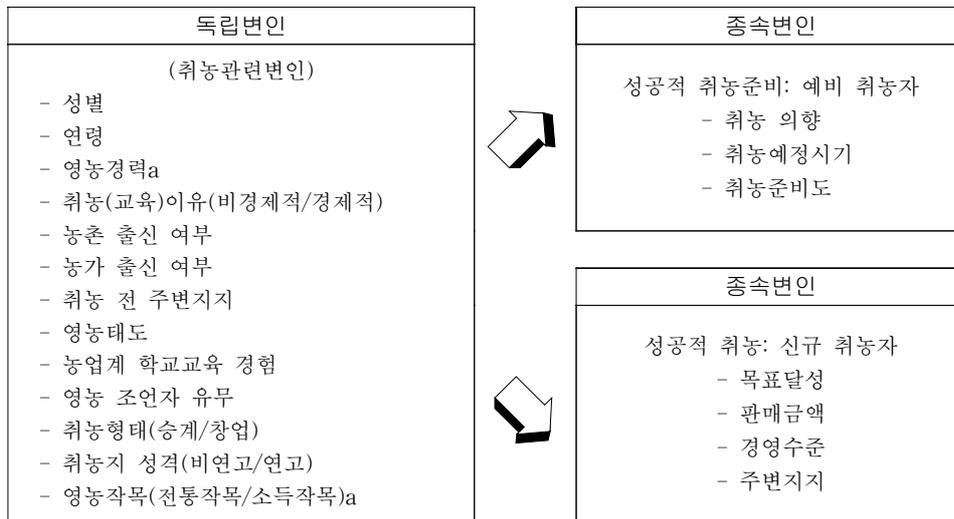
3. 연구방법

3.1. 연구 설계

이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 동향의

연장선에서 다양한 신규 취농의 실태와 성공적인 신규 취농(준비)와 관련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신규 취농의 환경과 여건과 관련하여 취농자의 출신지, 농가 출신 여부, 영농 조연자 유무, 주변 사람들의 지지, 취농 이유, 영농에 대한 태도 등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예비 취농자의 취농 의향과 준비 상황과 관련하여 희망 취농형태, 취농예정지, 취농 예정작목, 취농의향, 취농예정시기, 취농준비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신규 취농자의 취농 실태와 관련하여 취농형태, 취농장소, 영농 경력, 취농초기 투자자금 규모 및 자금 조달 방법, 영농규모 및 농축산물 판매액, 영농목표 달성 정도, 현재의 경영수준, 주변 사람들의 지지 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성공적인 취농(준비)에 어떠한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은 분석 틀을 기반

그림 2. 신규 취농 관련 요인 구명을 위한 분석 틀



a: 신규 취농자 분석에서만 사용됨

하여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취농 예정자의 경우 성별, 연령, 입학 이유(비경제적 이유, 경제적 이유), 농촌출신 여부, 농가출신 여부, 주변지지 정도, 영농에 대한 태도,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 영농조언자 유무, 취농 형태(승계, 창업), 취농지 특성(연고지, 비연고지) 등의 취농 관련 변인군과 취농의향, 취농예정시기, 취농 준비도 등의 변인으로 구성된 성공적 취농준비 변인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신규 취농자의 경우 예비 취농자 분석에서 사용된 변인들 외에 영농경력, 영농작목(전통작목/소득작목) 등을 추가한 취농 관련 변인군과 초기 영농목표 달성정도, 농산물 판매금액, 경영 수준, 주변 사람들의 지지 등의 변인으로 구성된 성공적 취농 변인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3.2. 조사 대상

조사 대상자는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중 취농자 각각 139명과 45명, 전국귀농운동본부 교육생과 교육 수료생 중 귀농자 각각 134명과 62명 등으로 총 380명이다.

3.3. 조사 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예비 취농자용, 신규취농자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예비 취농자용 질문지의 경우 취농 환경과 여건 조사영역과 취농의향과 준비상황 조사영역으로 구성되었고, 신규 취농자용 질문지는 취농 환경과 여건 조사영역, 취농실태 조사영역으로 구성되

었고 각 영역별 구체적인 조사 항목은 연구설계에서 기술된 바와 같다. 조사 항목 중 영농에 대한 태도는 5점 척도의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문항간의 내적 합치도는 0.717이었다. 또한 취농 준비도는 취농 준비와 관련한 6개 부문(정신무장, 자금과 토지 등 정착기반, 재배(사육)기술, 경영기법, 주변사람지지, 농촌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자가 판단(5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문항 간의 내적 합치도는 0.797이었다. 경영 수준은 농업경영과 관련한 5개 부문(영농계획수립, 농자재구입, 재배(사육)관리, 시장판매, 경영분석진단)에 대한 자가 판단(5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문항간의 내적 합치도는 0.809이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는 3개 항목(가족 및 배우자, 농촌주민, 동료농민)에서의 지지에 대한 자가 판단(5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문항 간의 내적 합치도는 0.740이었다.

3.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05년 6월부터 9월 말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재학생과 전국귀농운동본부 교육생에 대해서는 교육 시간 중에 집단적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협조를 받아 담당 교사들이 직접 영농 현장을 방문하여 청취 조사하였다. 그리고 전국귀농운동본부 교육 수료생에 대해서는 귀농운동본부의 추천을 받아 100명에게 조사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회수하였다. 응답

표 1. 조사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예비 취농자			신규 취농자			합 계
		여주농전	귀농본부	소 계	여주농전	귀농본부	소 계	
연령	20세 이하	120 (87.0)	0 (0)	120 (44.6)	0 (0)	0 (0)	0 (0)	120 (32.0)
	21~30세	7 (5.1)	9 (6.9)	16 (5.9)	32 (72.7)	0 (0)	32 (30.2)	48 (12.8)
	31~40세	4 (2.9)	35 (26.7)	39 (14.5)	9 (20.5)	21 (33.9)	30 (28.3)	69 (18.4)
	41~50세	5 (3.6)	56 (42.7)	61 (22.7)	3 (6.8)	30 (48.4)	33 (31.1)	94 (25.1)
	51세 이상	2 (1.4)	31 (23.7)	33 (12.3)	0 (0)	11 (17.7)	11 (10.4)	42 (11.7)
성별	남	121 (87.1)	86 (64.7)	207 (76.1)	43 (95.6)	50 (80.6)	93 (86.9)	300 (79.2)
	여	18 (12.9)	47 (35.3)	65 (23.9)	2 (4.4)	12 (19.4)	14 (13.1)	79 (20.8)
합 계		139 (100)	133 (100)	272 (100)	45 (100)	62 (100)	107 (100)	379 (100)

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¹.

3.5. 자료분석

자료 분석에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으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과 정준상관분석 등의 통계기법이 사용되었고, 정준상관분석에 있어 p값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0.05 수준에서 판단하였다.

4. 연구결과

4.1. 신규 취농의 여건과 환경

예비 취농자 및 신규 취농자가 농촌 출

¹ 항목별도 무응답이 있기 때문에 응답자 현황표나 이후 연구결과에서의 표에서도 전체 합계가 380명이 되지 않는 집계표도 존재한다.

신 여부를 연령과 취농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예비 취농자의 경우 도시 출신과 농촌 출신 비율이 비슷하였지만, 신규 취농자의 경우 농촌출신이 다소 많았다. 예비 취농자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20대까지는 농촌 출신이 많고, 30대 이상은 도시 출신이 많았다. 또한 취농 형태별로는 예비 취농자 중에서 경영 승계자는 농촌 출신이 많고, 신규 창업자는 도시 출신이 많았다. 한편, 신규 취농자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40세 이하는 농촌 출신이 많고, 41세 이상에서는 도시 출신이 많았다. 취농 형태별로는 경영 승계자는 농촌 출신이 높고, 신규 창업자는 도시 출신이 많았다.

농가 출신 여부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예비 취농자들은 대체로 비농가 출신이 많았지만, 신규 취농자의 경우 비슷하였다. 예비 취농자는 취농형태별

로 보면 신규 창업인 경우가 특히 비농가 출신이 많았다. 신규 취농자는 연령대별로 20대는 농가 출신이 많지만, 30대 이상에서는 비농가 출신이 많았다. 취농 형태를 보면, 농가 출신은 경영 승계자가 많은 반면에 비농가 출신은 신규 창업자가 많았다. 영농 조연자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예비 취농자들은 대체로 영농 조연자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상은 영농 조연자가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20대 이상은 영농 조연자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취농 형태별로는 경영 승계자는 조연자가 있으나, 신규 창업자는 조연자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신규 취농자들은 대체로 영농조연자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상은 영농 조연자가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30대 이상은 영농 조연자 없는 경우가

표 2. 예비 취농자 및 신규 취농자의 출신지

단위: 명(%)

		연령(세)					합계	취농형태		합계
		~20	21~30	31~40	41~50	51~		경영승계	신규창업	
예비 취농자	도시	47 (39.8)	7 (46.7)	28 (71.8)	31 (51.7)	23 (69.7)	136 (51.3)	39 (41.5)	88 (55.3)	127 (50.2)
	농촌	71 (60.2)	8 (53.3)	11 (28.2)	29 (48.3)	10 (30.3)	129 (48.7)	55 (58.5)	71 (44.7)	126 (49.8)
	합계	118 (100)	15 (100)	39 (100)	60 (100)	33 (100)	265 (100)	94 (100)	159 (100)	253 (100)
신규 취농자	도시	0 (0.0)	4 (12.5)	14 (46.7)	23 (69.7)	7 (63.6)	48 (45.3)	2 (5.4)	44 (64.7)	46 (43.8)
	농촌	0 (0.0)	28 (87.5)	16 (53.3)	10 (30.3)	4 (36.4)	58 (54.7)	35 (94.6)	24 (35.3)	59 (56.2)
	합계	0 (0.0)	32 (100)	30 (100)	33 (100)	11 (100)	106 (100)	37 (100)	68 (100)	105 (100)

표 3. 예비 취농자 및 신규 취농자의 농가출신 여부

단위: 명(%)

		연령(세)					합계	취농형태		합계
		~20	21~30	31~40	41~50	51~		경영승계	신규창업	
예비 취농자	비농가	65 (55.6)	10 (62.5)	29 (74.4)	38 (62.3)	25 (75.8)	167 (62.8)	39 (41.9)	116 (72.5)	155 (61.3)
	농가	52 (44.4)	6 (37.5)	10 (25.6)	23 (37.7)	8 (24.2)	99 (37.2)	54 (58.1)	44 (27.5)	98 (38.7)
	합계	117 (100)	16 (100)	39 (100)	61 (100)	33 (100)	266 (100)	93 (100)	160 (100)	253 (100)
신규 취농자	비농가	0 (0.0)	5 (15.6)	18 (60.0)	25 (75.8)	6 (60.0)	54 (51.4)	3 (8.1)	50 (74.6)	53 (51.0)
	농가	0 (0.0)	27 (84.4)	12 (40.0)	8 (24.2)	4 (40.0)	51 (48.6)	34 (91.9)	17 (25.4)	51 (49.0)
	합계	0 (0.0)	32 (100)	30 (100)	33 (100)	10 (100)	105 (100)	37 (100)	67 (100)	104 (100)

많았다. 취농 형태별로는 경영 승계자는 영농 조연자 있는 반면, 신규 창업자는 영농 조연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신규 취농을 위한 상담 등의 필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취농 전 주변 사람들의 지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예비 취농자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농 종사에 대한 지지 정도가 긍정적이지도 그렇다고 부정적이지도 않았다.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취농 형태별로는 신규 창업자보다는 경영 승계자일 때가 대체로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높았다. 한편, 신규 취농자들은 대체로 영농 종사 전에는 주변으로

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적었다. 취농 형태별로는 신규 창업자보다는 경영 승계자일 때가 대체로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높았다.

취농 이유는 개인적 가치, 농촌생활, 건강, 능력, 미래 전망, 퇴직 여생, 도시 회피, 영농 승계 등의 8가지 항목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표 6>과 같다. 예비 취농자들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농촌생활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 등의 이유로 취농하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도시의 저소득을 피해’, ‘부모 영농승계’ 등의 이유는 적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는 ‘미래 농업 전망을 보고’, ‘부모 영농승계’, ‘도시의 저소득을

표 4. 예비 취농자 및 신규 취농자의 영농조연자 유무

단위: 명(%)

		연령(세)					합계	취농형태		합계
		~20	21~30	31~40	41~50	51~		경영승계	신규창업	
예비 취농자	없음	54 (45.4)	11 (68.8)	25 (64.1)	46 (75.4)	27 (84.4)	163 (61.0)	39 (41.1)	113 (70.6)	152 (59.6)
	있음	65 (54.6)	5 (31.3)	14 (35.9)	15 (24.6)	5 (15.6)	104 (39.0)	56 (58.9)	47 (29.4)	103 (40.4)
	합계	119 (100)	16 (100)	39 (100)	61 (100)	32 (100)	267 (100)	95 (100)	160 (100)	255 (100)
신규 취농자	없음	0 (0.0)	12 (37.5)	23 (76.7)	27 (81.8)	11 (100.0)	73 (68.9)	15 (40.5)	57 (83.8)	72 (68.6)
	있음	0 (0.0)	20 (62.5)	7 (23.3)	6 (18.2)	0 (0.0)	33 (31.1)	22 (59.5)	11 (16.2)	33 (31.4)
	합계	0 (0.0)	32 (100)	30 (100)	33 (100)	11 (100)	106 (100)	37 (100)	68 (100)	105 (100)

표 5. 예비 취농자 및 신규 취농자에 대한 취농전 주변 사람들의 지지

	연령(세)					합계	취농형태		합계
	~20	21~30	31~40	41~50	51~		경영승계	신규창업	
예비 취농자	3.13 (0.92)	2.94 (1.18)	2.67 (0.98)	3.00 (1.21)	3.00 (0.95)	3.00 (1.02)	3.22 (1.04)	2.86 (1.02)	3.00 (1.04)
신규 취농자	-	3.44 (1.08)	2.10 (1.09)	1.91 (1.16)	2.45 (0.82)	2.48 (1.25)	3.14 (1.18)	2.18 (1.17)	2.51 (1.26)

1) 주변 사람들의 지지에 대한 반응 범위: ① 매우 낮음~ ⑤ 매우 높음

2) () 안은 표준편차

피해’ 등의 경제적 이유와 ‘내 능력상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인 반면에, 30대 이상은 태별로는 경영 승계자는 ‘부모 영농승계’ ‘농촌생활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 ‘퇴직 후 여생을 위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등과 같이 비경제적 이유가 많았다. 신규 창업자는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농

표 6. 예비 취농자 및 신규 취농자의 취농 이유

단위: 명(%)

	연령(세)					합계	취농형태		합계	
	~20	21~30	31~40	41~50	51~		경영승계	신규창업		
예비 취 농 자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31 (14.8)	12 (33.3)	35 (37.6)	50 (34.5)	20 (24.7)	148 (26.2)	44 (23.4)	95 (27.3)	139 (25.9)
	농촌생활이 좋아서	32 (15.2)	5 (13.9)	19 (20.4)	29 (20.0)	17 (21.0)	102 (18.1)	32 (17.0)	66 (19.0)	98 (18.3)
	건강을 위해	0 (0)	4 (11.1)	25 (26.9)	35 (24.1)	20 (24.7)	84 (14.9)	21 (11.2)	56 (16.1)	77 (14.4)
	내 능력상 가장 적합	46 (21.9)	6 (16.7)	2 (2.2)	3 (2.1)	1 (1.2)	58 (10.3)	23 (12.2)	33 (9.5)	56 (10.4)
	미래 농업 전망을 보고	39 (18.6)	4 (11.1)	2 (2.2)	4 (2.8)	0 (0)	49 (8.7)	14 (7.4)	32 (9.2)	46 (8.6)
	퇴직 후 여생을 위해	0 (0)	0 (0)	5 (5.4)	20 (13.8)	19 (23.5)	44 (7.8)	8 (4.3)	35 (10.1)	43 (8.0)
	도시에서의 저소득을 피해	31 (14.8)	2 (5.6)	3 (3.2)	2 (1.4)	3 (3.7)	41 (7.3)	15 (8.0)	25 (7.2)	40 (7.5)
	부모 영농승계	31 (14.8)	3 (8.3)	2 (2.2)	2 (1.4)	1 (1.2)	39 (6.9)	31 (16.5)	6 (1.7)	37 (6.9)
	합계	210 (100)	36 (100)	93 (100)	145 (100)	81 (100)	565 (100)	188 (100)	348 (100)	536 (100)
신 규 취 농 자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0 (0.0)	4 (7.4)	25 (37.3)	27 (36.0)	11 (42.3)	67 (30.2)	9 (13.0)	56 (36.8)	65 (29.4)
	농촌생활이 좋아서	0 (0.0)	14 (25.9)	17 (25.4)	21 (28.0)	7 (26.9)	59 (26.6)	19 (27.5)	40 (26.3)	59 (26.7)
	건강을 위해	0 (0.0)	0 (0)	12 (17.9)	15 (20.0)	4 (15.4)	31 (14.0)	1 (1.4)	30 (19.7)	31 (14.0)
	부모 영농승계	0 (0.0)	15 (27.8)	1 (1.5)	0 (0)	0 (0)	16 (7.2)	15 (21.7)	1 (0.7)	16 (7.2)
	내 능력상 가장 적합	0 (0.0)	7 (13.0)	5 (7.5)	3 (4.0)	1 (3.8)	16 (7.2)	11 (15.9)	5 (3.3)	16 (7.2)
	미래 농업 전망을 보고	0 (0.0)	5 (9.3)	6 (9.0)	2 (2.7)	1 (3.8)	14 (6.3)	6 (8.7)	8 (5.3)	14 (6.3)
	도시에서의 저소득을 피해	0 (0.0)	9 (16.7)	1 (1.5)	1 (1.3)	1 (3.8)	12 (5.4)	8 (11.6)	5 (3.3)	13 (5.9)
	퇴직 후 여생을 위해	0 (0.0)	0 (0)	0 (0)	4 (5.3)	0 (0)	4 (1.8)	0 (0)	4 (2.6)	4 (1.8)
	사업실패 실직 때문	0 (0.0)	0 (0)	0 (0)	2 (2.7)	1 (3.8)	3 (1.4)	0 (0)	3 (2.0)	3 (1.4)
합계	0 (0.0)	54 (100)	67 (100)	75 (100)	26 (100)	222 (100)	69 (100)	152 (100)	221 (100)	

* 복수 응답을 집계한 것임.

표 7. 예비 취농자 및 신규 취농자의 영농태도

	연령(세)					합계	취농형태		합계
	~20	21~30	31~40	41~50	51~		경영승계	신규창업	
예비 취농자	34.13 (5.78)	34.38 (4.75)	35.72 (3.61)	36.28 (4.70)	33.37 (5.34)	34.78 (5.2)	34.96 (5.13)	34.90 (5.26)	34.95 (5.20)
신규 취농자	-	37.55 (4.75)	37.51 (3.73)	37.29 (4.10)	39.22 (4.11)	37.61 (4.17)	37.60 (4.75)	37.56 (3.97)	37.58 (4.22)

1) 영농태도의 이론적 반응 범위: 10~50 (부정적 태도~긍정적 태도)(이론적 평균: 30)
 2) () 안은 표준편차.

촌생활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 등의 이유가 많았다. 한편, 신규 취농자들은 취농 이유로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농촌생활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 등을 많이 지적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는 ‘미래 농업 전망을 보고’, ‘부모 영농승계’, ‘도시의 저소득을 피해’ 등과 같이 경제적 이유와 ‘내 능력상 가장 적합’ 등의 이유가 많은 반면에, 30대 이상은 ‘농촌생활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 ‘퇴직 후 여생을 위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등과 같이 비경제적 이유가 많았다. 취농 형태별로는 경영 승계자는 ‘농촌생활이 좋아서’, ‘부모 영농승계’ 및 ‘내 능력상 가장 적합’ 등의 이유가 많고, 신규 창업자는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농촌생활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 등의 이유가 많았다. 영농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7>

과 같다. 예비 취농자와 신규 취농자 모두 영농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취농형태에 따라 예비 취농자나 신규 취농자 모두 태도의 차이가 거의 없이 동일한 경향을 보였지만, 연령대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예비 취농자의 경우 30, 4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영농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두드러졌으며, 신규 취농자의 경우는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영농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두드러졌다.

4.2. 예비 취농자의 취농 의향과 준비 상황

예비 취농자들의 취농 형태를 연령별로 집계한 것이 <표 8>이다. 예비 취농자들은 상대적으로 경영 승계보다 신규 창업을 예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경

표 8. 예비 취농자의 연령대별 취농 형태

단위: 명(%)

	연령(세)					합계
	~20	21~30	31~40	41~50	51~	
경영승계	55 (47.8)	3 (18.8)	10 (27.8)	15 (26.8)	11 (37.9)	94 (37.3)
신규창업	60 (52.2)	13 (81.3)	26 (72.2)	41 (73.2)	18 (62.1)	158 (62.7)
합계	115 (100)	16 (100)	36 (100)	56 (100)	29 (100)	252 (100)

영 승계는 20세 이하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취농 예정지를 조사한 결과 <표 9>와 같다. 예비 취농자들은 대체로 연고지 취농을 예정하고 있었다. 예비 취농자들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비연고지를 취농 예정지로 생각하였으며, 취농 형태에 따라서는 경영승계자는 연고지, 신규 창업자는 비연고지를 취농 예정지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취농 시 희망하는 영농작목을 조사한 결

과 <표 10>과 같다. 채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축산, 일반밭작물, 과수 등이 많았지만, 특용작물, 화훼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리고 취농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일반 밭작물, 채소, 과수 등이 많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축산, 화훼 등이 많았다. 취농 형태에 따라서는 경영승계자들은 상대적으로 축산이 많았고, 신규 창업자들은 논벼, 일반밭작물, 채소 등이 많았다.

표 9. 예비 취농자의 취농 예정지

단위: 명(%)

	연령(세)					합계	취농형태		합계
	~20	21~30	31~40	41~50	51~		경영승계	신규창업	
비연고지	37 (31.6)	7 (43.8)	18 (50.0)	28 (49.1)	20 (62.5)	110 (42.6)	19 (20.0)	87 (54.7)	106 (41.7)
연고지	80 (68.4)	9 (56.3)	18 (50.0)	29 (50.9)	12 (37.5)	148 (57.4)	76 (80.0)	72 (45.3)	148 (58.3)
합계	117 (100)	16 (100)	36 (100)	57 (100)	32 (100)	258 (100)	95 (100)	159 (100)	254 (100)

표 10. 예비 취농자의 영농 예정 작목

단위: 명(%)

	연령(세)					합계	취농형태		합계
	~20	21~30	31~40	41~50	51~		경영승계	신규창업	
논벼	14 (12.1)	6 (40)	20 (52.6)	23 (41.1)	12 (37.5)	75 (29.2)	26 (27.4)	51 (33.1)	77 (30.9)
일반 밭작물	14 (12.1)	6 (40)	32 (84.2)	33 (58.9)	23 (71.9)	108 (42)	31 (32.6)	74 (48.1)	105 (42.2)
과수	25 (21.6)	4 (26.7)	9 (23.7)	28 (50)	14 (43.8)	80 (31.1)	27 (28.4)	49 (31.8)	76 (30.5)
채소	25 (21.6)	8 (53.3)	30 (78.9)	36 (64.3)	27 (84.4)	126 (49)	36 (37.9)	84 (54.5)	120 (48.2)
특용 작물	12 (10.3)	4 (26.7)	12 (31.6)	15 (26.8)	8 (25)	51 (19.8)	16 (16.8)	33 (21.4)	49 (19.7)
화훼	30 (25.9)	3 (20)	4 (10.5)	8 (14.3)	4 (12.5)	49 (19.1)	18 (18.9)	29 (18.8)	47 (18.9)
축산	64 (55.2)	4 (26.7)	12 (31.6)	20 (35.7)	11 (34.4)	111 (43.2)	55 (57.9)	57 (37)	112 (45)
합계	118 (100)	16 (100)	39 (100)	61 (100)	33 (100)	267 (100)	95 (100)	159 (100)	254 (100)

* 복수응답을 집계한 것임

취농 의향정도를 조사한 결과 <표 11>과 같다. 예비 취농자들의 취농의향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취농 의향이 높고, 취농형태별로는 경영 승계자보다는 신규 창업자일수록 취농 의향이 더 높았다.

취농 예정 시기를 조사한 결과 <표 12>와 같다. 취농예정시기를 3년 이내로 생각하는 경우가 3년 이후로 생각하는 경우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미정이거나 3년 이후인 경우가 많았고, 나

이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멀지 않은 시기에 취농을 예정하고 있었다.

예비 취농자들의 취농 준비와 관련한 정신무장, 자금과 토지, 영농지식과 기술, 경영기법, 주변 사람들의 지지, 현지 주민과의 관계 등에 대한 조사 결과 <표 1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비 취농자들은 상대적으로 정신무장은 잘 준비되어 있지만, 자금과 토지, 영농지식과 기술, 경영기법, 주변 사람들의 지지 등은 미흡하였으며, 특히 영농기술이나 경영기법에 대해서

표 11. 예비 취농자의 취농 의향

단위: 명(%)

	연령(세)					합계	취농형태		합계
	~20	21~30	31~40	41~50	51~		경영승계	신규창업	
매우 적음	7 (5.9)	1 (6.3)	0 (0.0)	0 (0.0)	1 (3.1)	9 (3.4)	3 (3.2)	4 (2.5)	7 (2.8)
적음	16 (13.4)	1 (6.3)	0 (0.0)	1 (1.7)	1 (3.1)	19 (7.2)	6 (6.3)	11 (6.9)	17 (6.7)
보통	51 (42.9)	2 (12.5)	7 (18.4)	8 (13.8)	5 (15.6)	73 (27.8)	31 (32.6)	42 (26.4)	73 (28.7)
많음	36 (30.3)	8 (50.0)	21 (55.3)	31 (53.4)	17 (53.1)	113 (43.0)	38 (40.0)	71 (44.7)	109 (42.9)
매우 많음	9 (7.6)	4 (25.0)	10 (26.3)	18 (31.0)	8 (25.0)	49 (18.6)	17 (17.9)	31 (19.5)	48 (18.9)
합계	119 (100)	16 (100)	38 (100)	58 (100)	32 (100)	263 (100)	95 (100)	159 (100)	254 (100)

표 12. 예비 취농자의 취농 예정 시기

단위: 명, (%)

	연령(세)					합계	취농형태		합계
	~20	21~30	31~40	41~50	51~		경영승계	신규창업	
1~2년 이내	16 (13.6)	8 (50.0)	18 (47.4)	24 (42.9)	11 (34.4)	77 (29.6)	29 (31.2)	45 (28.3)	74 (29.4)
3년 이내	24 (20.3)	2 (12.5)	10 (26.3)	19 (33.9)	11 (34.4)	66 (25.4)	21 (22.6)	45 (28.3)	66 (26.2)
3년 이후	17 (14.4)	2 (12.5)	3 (7.9)	8 (14.3)	7 (21.9)	37 (14.2)	17 (18.3)	20 (12.6)	37 (14.7)
미정	61 (51.7)	4 (25.0)	7 (18.4)	5 (8.9)	3 (9.4)	80 (30.8)	26 (28.0)	49 (30.8)	75 (29.8)
합계	118 (100)	16 (100)	38 (100)	56 (100)	32 (100)	260 (100)	93 (100)	159 (100)	252 (100)

표 13. 예비 취농자의 취농준비도

	연령(세)					합계	취농형태		합계
	~20	21~30	31~40	41~50	51~		경영승계	신규창업	
정신무장	2.86 (1.02)	3.07 (1.03)	3.45 (0.92)	3.75 (0.86)	3.53 (0.86)	3.23 (1.02)	3.30 (0.98)	3.24 (1.04)	3.26 (1.02)
자금/토지	2.50 (1.16)	2.47 (1.13)	2.21 (0.91)	3.04 (1.00)	3.09 (1.12)	2.65 (1.12)	2.83 (1.13)	2.58 (1.12)	2.67 (1.13)
지식/기술	2.80 (0.96)	2.27 (0.96)	1.81 (0.88)	2.14 (1.08)	1.91 (1.00)	2.37 (1.06)	2.69 (1.07)	2.20 (1.01)	2.39 (1.06)
경영기법	2.60 (1.09)	2.27 (1.03)	1.79 (0.91)	2.07 (1.12)	1.78 (0.91)	2.25 (1.10)	2.56 (1.13)	2.08 (1.05)	2.26 (1.10)
주변지지	2.97 (1.15)	2.71 (1.33)	2.47 (0.95)	2.84 (1.02)	2.63 (0.87)	2.81 (1.08)	3.13 (1.09)	2.65 (1.05)	2.83 (1.09)
주민관계	2.69 (1.09)	3.07 (1.07)	2.21 (0.84)	2.42 (1.10)	2.47 (1.05)	2.55 (1.07)	2.98 (1.12)	2.35 (0.96)	2.58 (1.07)
총 점	16.41 (4.79)	15.78 (5.45)	13.89 (3.85)	16.34 (4.33)	15.36 (4.08)	15.86 (4.53)	17.58 (4.89)	15.09 (4.11)	16.01 (4.57)

- 1) 각 항목의 반응 범위: ① 매우 낮음~ ⑤ 매우 높음
- 2) 총점의 이론적 반응범위는 6~30 (이론적 평균: 18)
- 3) ()안은 표준편차

는 스스로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각 연령별 경향을 보면, 우선 정신무장의 경우 예비 취농자들은 대체로 잘 준비되어 있지만, 연령에 따라서 20세 이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잘 준비되어 있고, 20세 이하는 다소 미흡하였다. 예비 취농자들의 자금과 토지와 같은 정착기반에 대한 준비는 전반적으로 미흡하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 경우 30대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되어 있었다. 취농형태별로는 신규 창업자보다는 경영 승계자가 자금과 토지의 준비정도가 상대적으로 잘되어 있었다. 영농지식과 기술에 대한 준비 수준이 매우 미흡하였다 연령대별로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준비가 잘되어 있었고, 취농 형태별로는 상대적으로 경영승계자가 신규창업자보다 준비가 잘되어 있었다. 경

영기법의 준비도 역시 대체로 미흡하였다.

연령대별로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준비정도가 미흡하였다. 취농 형태별로는 신규 창업자가 경영 승계자보다 상대적으로 준비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준비 수준은 대체로 미흡하였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준비 정도가 미흡하였고, 취농 형태별로는 신규 창업자가 경영 승계자보다 상대적으로 준비 정도가 미흡하였다. 현지 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준비도 대체로 미흡하였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준비정도가 미흡하였다. 취농 형태별로는 신규 창업자가 경영 승계자보다 상대적으로 준비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신규 취농자의 취농 실태

신규 취농자의 연령대별 취농 형태를 집

제한 결과 <표 14>에서 보면, 신규 취농자 중에는 예비 취농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 승계자보다 신규 창업자가 많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규 창업자가 많았다.

취농 장소를 조사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신규 취농자들의 취농 장소는 대체로

비연고지가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는 연고지가 많고 30대 이상은 비연고지가 많았고, 취농형태별로는 경영승계자는 연고지, 신규창업자는 비연고지로의 취농이 많았다.

현재 재배(사육)하고 있는 영농작목을 조사한 결과를 <표 16>에 집계하였는데, 일반밭작물, 논벼 등이 많은 반면, 화훼는

표 14. 신규 취농자의 연령대별 취농 형태

단위: 명(%)

	연령(세)				합계
	21~30	31~40	41~50	51~	
경영승계	27 (84.4)	8 (27.6)	2 (6.3)	0 (0.0)	37 (35.6)
신규창업	5 (15.6)	21 (72.4)	30 (93.8)	11 (100.0)	67 (64.4)
합계	32 (100)	29 (100)	32 (100)	11 (100)	104 (100)

표 15. 신규 취농자의 취농 장소

단위: 명(%)

	연령(세)				합계	취농형태		합계
	21~30	31~40	41~50	51~		경영승계	신규창업	
연고지	27 (84.4)	9 (30.0)	4 (12.1)	4 (36.4)	44 (41.5)	34 (91.9)	11 (16.2)	45 (42.9)
합계	32 (100)	30 (100)	33 (100)	11 (100)	106 (100)	37 (100)	68 (100)	105 (100)

표 16. 신규 취농자의 영농 작목

단위: 명(%)

	연령(세)				합계	취농형태		합계
	21~30	31~40	41~50	51~		경영승계	신규창업	
논벼	17 (53.1)	18 (60)	18 (54.5)	4 (36.4)	57 (53.8)	24 (64.9)	33 (48.5)	57 (54.3)
채소	8 (25)	9 (30)	11 (33.3)	5 (45.5)	33 (31.1)	9 (24.3)	23 (33.8)	32 (30.5)
축산	14 (43.8)	5 (16.7)	4 (12.1)	4 (36.4)	27 (25.5)	15 (40.5)	12 (17.6)	27 (25.7)
과수	8 (25)	6 (20)	8 (24.2)	3 (27.3)	25 (23.6)	11 (29.7)	13 (19.1)	24 (22.9)
특용작물	8 (25)	5 (16.7)	3 (9.1)	3 (27.3)	19 (17.9)	11 (29.7)	9 (13.2)	20 (19)
화훼	0 (0)	1 (3.3)	1 (3)	1 (9.1)	3 (2.8)	0 (0)	3 (4.4)	3 (2.9)
합계	32 (100)	30 (100)	33 (100)	11 (100)	106 (100)	37 (100)	68 (100)	105 (100)

거의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일반밭작물, 채소 등이 많았다. 취농형태별로는 경영 승계자는 논벼, 축산이 많은 반면, 신규 창업자는 일반밭작물이 많았다.

신규 취농자들의 영농 경력을 조사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응답자 중 75%가 6년 미만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영농 경력이 점차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취농형태별로는 신규창업인 경우보다 경영승계인 경우가 영농 경력이 다소 많았다.

표 17. 신규취농자의 영농경력 (단위: 명(%))

	연령(세)				합계	취농형태		합계
	21~30	31~40	41~50	51~		경영승계	신규창업	
3년이하	12 (40.0)	10 (33.3)	10 (30.3)	4 (36.4)	36 (34.6)	11 (31.4)	24 (35.8)	35 (34.3)
4~6년	9 (30.0)	11 (36.7)	16 (48.5)	6 (54.5)	42 (40.4)	11 (31.4)	30 (44.8)	41 (40.2)
7년이상	9 (30.0)	9 (30.0)	7 (21.2)	1 (9.1)	26 (25.0)	13 (37.1)	13 (19.4)	26 (25.5)
합계	30 (100.0)	30 (100.0)	33 (100.0)	11 (100.0)	104 (100.0)	35 (100.0)	67 (100.0)	102 (100.0)

표 18. 신규 취농자의 초기투자자금 현황 (단위: 명, (%))

		연령(세)				합계	취농형태		합계
		21~30	31~40	41~50	51~		경영승계	신규창업	
주택 투자 규모	1000만원 이하	9 (69.2)	18 (75.0)	17 (56.7)	4 (36.4)	48 (61.5)	13 (72.2)	33 (56.9)	46 (60.5)
	1001~3000만원	3 (23.1)	4 (16.7)	5 (16.7)	2 (18.2)	14 (17.9)	4 (22.2)	10 (17.2)	14 (18.4)
	3001~5000만원	0 (0)	0 (0)	5 (16.7)	1 (9.1)	6 (7.7)	0 (0)	6 (10.3)	6 (7.9)
	5001만원 이상	1 (7.7)	2 (8.3)	3 (10.0)	4 (36.4)	10 (12.8)	1 (5.6)	9 (15.5)	10 (13.2)
농장 투자 규모	1000만원 이하	2 (15.4)	12 (48.0)	14 (46.7)	2 (18.2)	30 (38.0)	3 (16.7)	26 (44.1)	29 (37.7)
	1001~3000만원	4 (30.8)	6 (24.0)	5 (16.7)	4 (36.4)	19 (24.1)	6 (33.3)	12 (20.3)	18 (23.4)
	3001~5000만원	2 (15.4)	4 (16.0)	3 (10.0)	2 (18.2)	11 (13.9)	4 (22.2)	7 (11.9)	11 (14.3)
	5001만원 이상	5 (38.5)	3 (12.0)	8 (26.7)	3 (27.3)	19 (24.1)	5 (27.8)	14 (23.7)	19 (24.7)
총 투자 규모	1000만원 이하	2 (15.4)	8 (33.3)	9 (30.0)	1 (9.1)	20 (25.6)	1 (5.6)	18 (31.0)	19 (25.0)
	1001~3000만원	2 (15.4)	7 (29.2)	8 (26.7)	2 (18.2)	19 (24.4)	5 (27.8)	13 (22.4)	18 (23.7)
	3001~5000만원	4 (30.8)	3 (12.5)	2 (6.7)	2 (18.2)	11 (14.1)	6 (33.3)	5 (8.6)	11 (14.5)
	5001~1억원	4 (30.8)	5 (20.8)	4 (13.3)	1 (9.1)	14 (17.9)	5 (27.8)	9 (15.5)	14 (18.4)
	1억원 이상	1 (7.7)	1 (4.2)	7 (23.3)	5 (45.5)	14 (17.9)	1 (5.6)	13 (22.4)	14 (18.4)
전 체	13 (100)	25 (100)	30 (100)	11 (100)	79 (100)	18 (100)	59 (100)	77 (100)	

자의 과반수가 총액으로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었다. 세부적인 투자 내역을 보면, 주택에 대한 투자는 과반수가 1000만원 이하였으며, 농장에 대한 투자는 과반수가 3천만원 이하였다. 그리고 초기 투자한 자본은 주택보다는 농장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체 투자액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농장보다는 주택에 대한 투자가 많았다. 취농 형태별로는 경영 승계자가 농장 관련 투자가 많은 반면, 신규창업자는 상대적으로 주택 투자에 치중하는 경향이다.

그리고 신규 취농자들이 영농 초기에 필

요한 자금을 조달한 방식을 조사한 결과 <표 19>와 같다. 전체적으로 자기자본에 의한 자금 조달의 경우가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는 대출, 사채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으나, 30대 이상의 경우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취농 형태별로는 신규 창업자 대부분은 자기자본에 의해 자금 조달을 하였으나, 경영승계자는 과반수가 대출이나 사채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규모와 농축산물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는 <표 20>와 <표 21>과 같다. 신규 취농자들의 경영규모는 과반수가 3000평

표 19. 신규 취농자의 자금 조달 방법

단위: 명, (%)

	연령(세)				합계	취농형태		합계
	21~30	31~40	41~50	51~		경영승계	신규창업	
자기자본	5 (25.0)	24 (85.7)	31 (96.9)	10 (90.9)	70 (76.9)	10 (40.0)	58 (89.2)	68 (75.6)
대출	12 (60.0)	4 (14.3)	0 (0)	0 (0)	16 (17.6)	11 (44.0)	6 (9.2)	17 (18.9)
사채	2 (10.0)	0 (0)	0 (0)	0 (0)	2 (2.2)	2 (8.0)	0 (0)	2 (2.2)
전체	20 (100)	28 (100)	32 (100)	11 (100)	91 (100)	25 (100)	65 (100)	90 (100)

표 20. 신규 취농자의 경작규모

단위: 명(%)

	연령(세)				합계	취농형태		합계
	21~30	31~40	41~50	51~		경영승계	신규창업	
1000평이하	0 (0.0)	7 (24.1)	8 (26.7)	1 (9.1)	16 (17.0)	0 (0.0)	14 (22.6)	14 (15.2)
1001-3000평	4 (16.7)	11 (37.9)	10 (33.3)	8 (72.7)	33 (35.1)	2 (6.7)	31 (50.0)	33 (35.9)
3001-5000평	5 (20.8)	2 (6.9)	4 (13.3)	1 (9.1)	12 (12.8)	6 (20.0)	6 (9.7)	12 (13.0)
5001-10000평	6 (25.0)	8 (27.6)	4 (13.3)	1 (9.1)	19 (20.2)	11 (36.7)	8 (12.9)	19 (20.7)
1만평이상	9 (37.5)	1 (3.4)	4 (13.3)	0 (0.0)	14 (14.9)	11 (36.7)	3 (4.8)	14 (15.2)
합계	24 (100)	29 (100)	30 (100)	11 (100)	94 (100)	30 (100)	62 (100)	92 (100)

이하의 영세한 경영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영세농이기 때문에 농촌에 정착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경영규모가 큰 경향이며, 취농형태별로는 경영승계자일수록 경영규모가 큰 편이다. 또한 농축산물 판매규모는 신규 취농자의 과반수가 2000만원 이하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는 3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반

수를 넘었지만, 30대 이상의 경우 거의 80% 이상이 3천만원 이하였다. 취농형태별로는 경영승계자는 과반수가 3천만원 이상이었지만, 신규창업자의 경우는 대다수(90%)가 3천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신규 취농자들의 취농초기 설정한 영농 목표 달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응답자의 38%가 영농 초기 설정한 영농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표 21. 신규 취농자의 농축산물 판매금액

단위: 명(%)

	연령(세)				합계	취농형태		합계
	21~30	31~40	41~50	51~		경영승계	신규창업	
5백만원 이하	4 (14.3)	8 (32.0)	13 (39.4)	6 (66.7)	31 (32.6)	4 (12.1)	25 (41.0)	29 (30.9)
500~1000만원	0 (0.0)	7 (28.0)	5 (15.2)	1 (11.1)	13 (13.7)	0 (0.0)	13 (21.3)	13 (13.8)
1000~2000만원	2 (7.1)	3 (12.0)	7 (21.2)	1 (11.1)	13 (13.7)	4 (12.1)	9 (14.8)	13 (13.8)
2000~3000만원	4 (14.3)	4 (16.0)	3 (9.1)	1 (11.1)	12 (12.6)	5 (15.2)	8 (13.1)	13 (13.8)
3000~5000만원	9 (32.1)	2 (8.0)	2 (6.1)	0 (0.0)	13 (13.7)	10 (30.3)	3 (4.9)	13 (13.8)
5000~1억원	5 (17.9)	1 (4.0)	1 (3.0)	0 (0.0)	7 (7.4)	5 (15.2)	2 (3.3)	7 (7.4)
1억원 이상	4 (14.3)	0 (0.0)	2 (6.1)	0 (0.0)	6 (6.3)	5 (15.2)	1 (1.6)	6 (6.4)
합계	28 (100)	25 (100)	33 (100)	9 (100)	95 (100)	33 (100)	61 (100)	94 (100)

표 22. 신규 취농자의 영농목표 달성 정도

단위: 명, (%)

	연령(세)				합계	취농형태		합계
	21~30	31~40	41~50	51~		경영승계	신규창업	
매우 미달성	3 (9.4)	5 (16.7)	3 (9.7)	1 (9.1)	12 (11.5)	1 (2.7)	10 (14.9)	11 (10.6)
미달성	7 (21.9)	8 (26.7)	10 (32.3)	4 (36.4)	29 (27.9)	8 (21.6)	21 (31.3)	29 (27.9)
보통	18 (56.3)	10 (33.3)	9 (29.0)	5 (45.5)	42 (40.4)	20 (54.1)	23 (34.3)	43 (41.3)
달성	3 (9.4)	4 (13.3)	6 (19.4)	1 (9.1)	14 (13.5)	6 (16.2)	8 (11.9)	14 (13.5)
초과 달성	1 (3.1)	3 (10.0)	3 (9.7)	0 (0)	7 (6.7)	2 (5.4)	5 (7.5)	7 (6.7)
전 체	32 (100)	30 (100)	31 (100)	11 (100)	104 (100)	37 (100)	67 (100)	104 (100)

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취농형태별로는 경영 승계보다 신규 창업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미달성 사례가 많았다. 이것은 신규 취농하여 영농에 정착하기까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신규 취농자들의 현재의 경영 수준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신규 취농자가 이웃농가와 비교하여 자신의 영농계획 수립, 농자재 구입, 재배(사육)관리 기술, 시장 판매, 경영분석 진단 등의 수준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영농 계획, 재배(사육)관리 기술, 경영분석 진단 등은 자신의 능력을 대체로 높게 평가하지만, 농자재 구입과 시장판매 등은 대체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연령대별, 취농 형태별 경향을 보면 영농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연령대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취농 형태별로는 신규 창업자가 경

영 승계자보다 영농계획 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농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신규 취농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능력 수준이 낮았고, 취농 형태별로는 경영 승계자보다 신규 창업자의 경우가 수준이 낮았다. 재배사육 기술에 대해서는 신규 취농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웃농가 보다 높았고, 취농 형태별로는 경영 승계자가 신규 창업자보다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시장 판매에 대해서는 신규 취농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웃농가보다 수준이 낮았고, 취농 형태별로는 경영 승계자보다 신규 창업자가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경영분석 진단에 대해서는 이웃농가와 비교하여 보통 이상이었지만, 신규 취농자의 연령대와 취농 형태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경영 승계자보다 신규 창업자가 영농계획 수립이나 영농기술 면에 있어 어려움이 많으며, 따라서 이들의 영농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이나 지도가

표 23. 신규 취농자의 경영수준

	연령(세)				합계	취농형태		합계
	21~30	31~40	41~50	51~		경영승계	신규창업	
영농 계획	3.29 (0.69)	3.37 (0.89)	3.13 (1.19)	3.20 (0.79)	3.25 (0.93)	3.36 (0.64)	3.23 (1.04)	3.28 (0.92)
농자재구입	3.16 (0.69)	2.76 (1.02)	2.66 (1.31)	2.40 (1.08)	2.81 (1.06)	3.26 (0.70)	2.60 (1.14)	2.83 (1.06)
재배(사육)관리	3.43 (0.68)	2.83 (1.14)	2.97 (1.18)	2.64 (1.03)	3.03 (1.05)	3.50 (0.62)	2.82 (1.15)	3.05 (1.05)
시장판매	3.20 (0.96)	3.07 (1.28)	2.97 (1.26)	2.40 (1.08)	3.01 (1.17)	3.24 (1.08)	2.89 (1.21)	3.01 (1.17)
경영분석진단	3.03 (0.77)	3.14 (1.01)	3.13 (1.15)	2.70 (1.06)	3.06 (0.99)	3.14 (0.81)	3.03 (1.08)	3.07 (0.99)
총 점	16.14 (2.65)	15.29 (3.91)	14.94 (4.92)	13.30 (3.27)	15.22 (3.94)	16.61 (2.91)	14.56 (4.23)	15.26 (3.93)

1) 각 항목의 반응 범위: ① 매우 낮음~ ⑤ 매우 높음
 2) 총점의 이론적 반응범위는 5~25 (이론적 평균: 15)
 3) ()안은 표준편차

중요한 과제이다.

신규 취농자들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가족과 배우자, 지역 주민, 동료 농업인 등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표 24>와 같다. 대체로 주변사람들 전반에 대해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고, 특히 가족 및 배우자의 지지가 높았다. 가족과 배우자의 지지는 연령대나 취농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많은 지지가 있었고, 신규 창업자가 경영 승계자보다 지역 주민의 지지를 더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료 농업인들로부터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신규 창업자가 경영 승계자에 비하여 동료 농업인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성공적인 신규 취농(준비) 관련 변인

성취적인 신규 취농준비 또는 취농과 관련한 요인을 구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준상관분석은 변인군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통계기법으로 이 연구에서와 같이 취농

환경과 여건으로 구성된 독립변인군이 실제 취농준비나 취농을 구성하는 종속변인군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다만 예비 취농자와 신규 취농자들의 취농환경과 여건을 구성하는 변인군이 다소 다르고, 예비 취농자의 경우 종속변인 성공적인 취농준비, 신규 취농자의 경우 성공적인 취농으로 서로 다르기에 각 집단별로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준상관분석에 위해 몇 가지 범주형 변인은 다음과 같이 더미화하였다. 성별은 남성은 0, 여성 1로, 입학 이유의 경우 9개 응답에 대하여 농촌생활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 퇴직 후 여생을 위해, 사업실패/실직, 추구하는 가치, 내 능력상 적합 등은 '비경제적 이유'는 0으로, 미래 농업전망을 보고, 부모 영농승계, 도시의 저소득을 피해 등은 '경제적 이유'는 1로 변환하였다. 농촌출신 유무, 농가출신 유무, 영농조언자 유무, 농업계 학교경험 유무 등의 경우 무는 0, 유는 1로 변환하였고, 취농 형태의 경우 경영승계 0, 신규창업 1로, 취농지 특성의 경우 비연고지는 0, 연고지는 1로 변환하였다. 영농작목의 경우 조사된 7개 작목 중 논벼, 일반밭작물 등 전통작목

표 24. 신규 취농자에 대한 주변지지

	연령(세)				합계	취농형태		합계
	21~30	31~40	41~50	51~		경영승계	신규창업	
가족·배우자	3.60 (1.19)	3.38 (1.29)	3.61 (1.02)	3.73 (1.27)	3.55 (1.17)	3.62 (1.05)	3.52 (1.25)	3.56 (1.18)
지역사회 주민	2.97 (0.91)	3.03 (1.09)	3.00 (0.97)	3.45 (1.13)	3.05 (1.00)	3.00 (0.87)	3.08 (1.07)	3.05 (1.00)
동료 농민	3.11 (0.79)	3.23 (1.19)	3.35 (1.02)	3.45 (0.69)	3.26 (0.98)	3.12 (0.86)	3.35 (1.01)	3.28 (0.96)
총 점	9.68 (2.26)	9.72 (2.93)	9.97 (2.56)	10.64 (2.42)	9.89 (2.56)	9.81 (2.18)	9.95 (2.72)	9.91 (2.55)

1) 각 항목의 반응 범위: ① 매우 낮음~ ⑤ 매우 높음
 2) 총점의 이론적 반응범위는 3~15 (이론적 평균: 9)
 3) () 안은 표준편차.

은 0, 과수, 채소, 특용작목, 화훼, 축산 등은 소득작목은 1로 변환하였다.

먼저, 예비 취농자의 취농 관련 변인들과 성공적인 취농준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2개의 정준상관이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제1 정준상관에 의하여 취농 관련 변인군이 성공적 취농준비 변인군을 33.0% 설명하고, 제2정준상관에 의해서는 8.8% 설명하고 있었다.

제1 정준상관(정준상관계수=0.76)을 통해 취농 관련 변인 중에서도 영농에 대한 태도, 연령,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 등이 성공적인 취농준비 실태 변인군에 대한 설명력이 높았다. 특히 취농의향, 취농예정시기

등의 취농준비 실태 변인들이 취농 관련 변인군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었다. 즉 영농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취농의향이 높고, 취농예정시기가 현재에서 가까웠다.

제2 정준상관(정준상관계수=0.57)을 통해 취농 관련 변인 중에서도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 영농조언자 유무, 주변지지 등이 성공적인 취농준비 실태 변인군에 대한 설명력이 높았다. 특히 취농준비정도가 취농 관련 변인군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었다. 즉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영농조언자가 있는 사람일수록, 주변의 지

표 25. 예비 취농자의 취농 관련 변인군과 성공적인 취농 준비 변인군 간의 정준상관분석

		제1정준상관		제2정준상관			
정준상관계수		0.76		0.57			
Wilk's		0.27		0.63			
Chi-SQ		279.7		98.1			
DF		33		20			
유의도		0.000		0.000			
요 인		표준화 정준변량계수		정준부하량		교차부하량	
		제1 정준상관	제2 정준상관	제1 정준상관	제2 정준상관	제1 정준상관	제2 정준상관
취농관련 변인군	성별	0.21	-0.25	0.07	-0.49	0.06	-0.28
	연령	-0.34	0.39	-0.58	-0.45	-0.44	-0.25
	입학이유	-0.03	0.11	0.36	0.36	0.27	0.21
	농촌출신	-0.06	0.12	-0.15	0.42	-0.12	0.24
	농가출신	-0.20	0.03	-0.29	0.41	-0.22	0.23
	주변지지	-0.14	0.28	-0.24	0.56	-0.18	0.32
	영농태도	-0.58	0.07	-0.73	0.13	-0.55	0.07
	농업계학교교육	0.45	0.70	0.56	0.73	0.42	0.41
	영농조언자	-0.21	0.24	-0.12	0.57	-0.09	0.32
	취농형태	-0.01	0.07	-0.01	0.44	-0.01	0.25
	취농지	-0.04	-0.18	0.02	-0.50	0.02	-0.28
성공적 취농준비 변인군	취농의향	-0.73	-0.35	-0.96	-0.04	-0.72	-0.02
	취농예정시기	-0.35	-0.16	-0.80	0.00	-0.60	0.00
	취농준비도	-0.04	1.09	-0.43	0.90	-0.33	0.51

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취농 준비가 잘되어 있었다.

한편 신규 취농자의 취농 관련 변인과 성공적인 취농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6>과 같다. 1개의 정준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고, 제1정준상관에 의해 취농 관련 변인군이 성공적인 취농 변인군을 22.0% 설명하고 있었다.

제1 정준상관(정준상관계수=0.79)을 통해 취농 관련 변인 중에서도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 취농 형태, 농촌 출신 여부, 취농 이유, 영농 경력, 농가출신 여부, 영농작목,

취농지 특성, 연령, 취농 전 주변 지지 등이 성공적인 취농 변인군에 대한 설명력이 높았다. 특히 농축산물 판매규모, 경영수준 등의 취농 변인이 취농 관련 변인군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었다. 즉, 농업계학교교육경험이 있을수록, 취농 형태가 신규창업보다는 경영승계일수록, 도시보다는 농촌 출신일수록, 취농 이유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등의 이유보다는 영농승계나 돈을 벌기 위한 것일수록, 영농 경력이 많을수록, 농가출신일수록, 영농작목을 논벼나 일반 밭작물보다는 축산, 과수, 채소, 특용,

표 26. 신규 취농자의 취농 관련 변인군과 성공적인 취농 변인군 간의 정준상관분석

		제1정준상관		
정준상관계수		0.79		
Wilk's		0.201		
Chi-SQ		108.9		
DF		52		
유의도		0.000		
요 인		표준화 정준변량계수	정준부하량	교차부하량
취농 관련 변인군	성별	-0.10	-0.02	-0.02
	연령	-0.21	-0.55	-0.43
	영농 경력	0.51	0.58	0.46
	취농 이유	0.34	0.61	0.48
	농촌 출신	0.24	0.61	0.49
	농가 출신	0.05	0.58	0.46
	취농 전 주변 지지	0.09	0.47	0.37
	영농태도	-0.11	0.03	0.02
	농업계학교교육	-0.15	0.72	0.57
	영농조언자	0.08	0.36	0.28
	취농 형태	-0.60	-0.64	-0.50
	취농지	-0.47	0.55	0.43
	영농작목	0.22	0.56	0.44
성공적 취농 변인군	목표 달성 정도	-0.07	0.17	0.13
	판매금액	0.89	0.98	0.77
	경영 수준	0.23	0.65	0.52
	주변 지지	-0.16	0.04	0.03

화훼를 영농작목으로 택한 사람일수록, 비연고지보다는 연고지에 취농한 사람일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취농 전 주변의 지지가 많을수록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많고, 경영 수준이 높았다.

5. 결론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과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였다.

예비 취농자와 신규 취농자들은 취농 환경과 여건을 보면, 도시와 농촌 출신, 농가와 비농가 출신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고, 대체로 영농 준비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언자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리고 취농의 이유는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아’, ‘농촌 생활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 등 비경제적인 배경이었고 도시로부터 전직이나 영농을 통한 소득 확보 또는 부모의 영농 승계 등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신규 취농 정책에 있어 농업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신규 취농을 너무 영농 인력의 확보라는 산업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에서 탈피하여, 신규 취농자들의 농촌이라는 삶의 공간에 대한 적응의 관점을 포괄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비 취농자의 취농 의향과 준비 상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경영 승계보다 신규 창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연고지에 취농을 예정하고 있었다. 또한 취농시의 영농작목으로는 채소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축산, 일반 밭작물, 과수 등이었으며, 특용작물이나 화훼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예비 취농자들의 취농 의향은 대체로 높았으며, 취농 예정 시기는 3년 이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예비 취농자들은 취농 준비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정신 무장은 잘 되어 있지만, 영농자금과 토지, 영농지식과 기술, 경영기법, 주변 사람들의 지지 등은 미흡하였다. 특히 영농기술이나 경영기법에 대해서는 스스로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편 신규 취농자들의 취농 실태를 보면 경영 승계보다 신규 창업의 형태가 많았고, 대체로 비연고지에 취농하고 있었으며, 일반 밭작물이나 논벼와 같이 영농기술이 덜 요하는 작목을 주로 경영하였다. 또한 신규 취농자들이 영농 초기에 투자한 자금은 영농과 주택 자금을 포함하여 3천만원 이하가 과반수이었으며, 취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은 대부분이 자기자본에 의존하고 있었다. 신규 취농자의 영농규모를 보면 과반수가 3천 평 이하의 영세한 경영규모이며, 이들의 농축산물 판매규모도 과반수가 2천만원 이하였다. 이들은 영농 초기 설정한 영농 목표를 대체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의 경영수준은 영농 계획, 재배(사육)관리 기술, 경영분석 진단 등은 높았지만, 농자재 구입, 농산물 판매 등을 대체로 낮았다. 이들 신규 취농자들은 대체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가족 및 배우자의 지지가 높았다. 예비 취농자와 신규 취농자 모두 농업·농촌 생활에 대한 정신 자세와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데 비해, 실제 영농과 관련하여 준비 즉 영농기반 및 생활기반, 경영 역량 등은 부족함을 보여 준다. 신규 취농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농준비교육과 더불어 취농형태(창업농, 승계농), 취농지 특성(연고지, 비연고지), 취농기반의 규모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성공적인 취농(준비)를 설명해 주는 취농 관련 변인은 예비 취농자들의 경우 성공적 취농 준비와 관련한 취농의향과 취농 예정시기 등의 취농 가능성은 영농에 대한 태도, 연령,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이었다. 즉 영농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취농의향이 높고, 취농예정시기가 현재에서 가까웠다. 예비 취농자들의 취농 준비 정도는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 영농조언자 유무, 주변 사람들의 지지 등에 의해 설명되었다. 즉, 농업계 학교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영농조언자가 있는 사람일수록, 주변의 지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취농 준비가 잘되어 있었다. 한편, 신규 취농자들의 성공적 취농과 관련하여 농축산물 판매액과 농업경영 수준 등은 농업계 학교교육경험, 취농형태, 출신지, 취농이유, 영농 경력, 농가출신 여부, 영농작목특성, 취농지 특성, 연령, 취농 전 주변 사람들의 지지 등에 의해 잘 설명이 되었다. 즉, 농업계학교교육경험이 있을수록, 경영승계자일수록, 농촌 출신일수록, 취농이유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일수록, 영농 경력이 많을수록, 농가 출신일수록, 영농작목으로 경제작목을 택한 사람일수

록, 연고지에 취농한 사람일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취농 전 주변의 지지가 많을수록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많고, 경영수준이 높았다. 예비 취농자들의 취농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영농에 대한 태도의 함양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유도하고, 취농지 선정, 영농작목 선정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농업계 학교교육을 통해 취농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농기술뿐만 아니라 좀 더 농업·농촌 생활에 대한 정서적인 준비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신규 취농자의 영농 정착 촉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영농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강대구, 이근수, 정철영. 2003. 『창업농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농림부.

강대구, 정철영, 이종상. 2004. 『농업인력 구조 변화에 따른 정예농업인력 육성 방안 연구』. 농림부.

김성수, 정지웅, 임형백, 고운미, 김정태, 이성. 2004. “귀농자의 영농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1): 53-65. 한국농촌지도학회.

김정호, 김태곤, 이병훈. 2003. 『1990·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형용. 1998. “귀농자의 실태와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축산경영연구』 14(1): 205-223.

나승일, 이용환, 김진모, 강경중, 김종우, 마상진, 정상택, 전영욱. 2004. “한국농업전문학

- 교 졸업생의 영농정착 실태 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6(4): 1-20.
- 농림부. 2004a. 『농업·농촌 종합대책: 세부추진 계획』.
- 농림부. 2004b.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 류창렬. 1982. “영농정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4(1): 49-54.
- 민상기, 정명채. 1995. 『12월 연구 보고: 귀농자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해균. 1972. “농업에 대한 태도 검사척.” 『한국농업교육학회지』 4(1): 1-6.
- 원상봉. 1983. “영농인에게 필요한 정의적 직업 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2(1): 74-97. 한국직업교육학회.
- 안덕현 등. 2001.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 방안』. 한국농업전문학교.
- 이동하. 1998. 『귀농자의 농촌적응과 관련변인』. 서울대 석사논문.
- 이영대. 1981. 『성공적인 영농정착자의 영농정착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환, 정철영, 나승일, 서우석, 강대구, 김수욱. 2000. 『21C 신지식농업인화 방안 및 교육·훈련 연구』. 농림부.
- 정성봉. 1987.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 자영자의 영농 정착과 관련변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정철영, 서우석. 1998. “고등학교 학생들의 농업과 농업직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0(2): 1-20.
- 정철영, 이무근, 이용환, 나승일. 2001. 『21세기 지식 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 방안』. 서울대학교.
- 정한모. 2002. 『귀농인의 농촌생활과 영농정착 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록환. 1998. “귀농가구의 생활 실태.” 『농촌생활과학』 73.
- 조영철, 김성수. 1987. “농어민 후계자의 영농정착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9(2): 13-23.
- Phipps, L.J. & Osborne, E.W. 1988. Handbook on Agricultural Education in Public Schools. ILL, Danville: The Interstate Printers & Publishers, Inc.
- Molnar, J. and J. Dunkelberger. 1981. The expectation to farm: an interaction of background and experience. Rural Sociology 46:62-84.

<p>■ 원고 접수일 : 2006년 2월 9일 원고 심사일 : 2006년 3월 9일 심사 완료일 : 2006년 3월 24일</p>
--